

## ‘대~한민국! 월드컵 16강’...올해를 빛낸 최고 스포츠 뉴스

### 1 ‘중꺼마’ 한국축구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는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의 대업을 이뤄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끈 한국 대표팀은 우루과이와 조별 리그 1차전에서 0-0 무승부, 가나와 2차전에서 2-3 패배에 그쳤으나 마지막 포르투갈전에서 극적인 2-1 역전승을 거둬 포르투갈에 이어 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브라질과 16강전에서는 1-4로 대패했지만, 대회 내내 강팀을 상대로 몰려서 지 않고 당당한 승부를 펼친 태극전사들을 팬들은 자랑스러워했다.

특히 손흥민은 소속팀에서 입은 안와 골절 부상으로 몸이 성치 않은 데도 안면 보호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맹활약했다.

손흥민은 부상 뒤 SNS를 통해 ‘월드컵 출전 선언’을 하면서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보며” 도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동료들과 토틀 문쳐 그 1%를 현실화해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포르투갈전 뒤 선수들이 든 태극기에 쓰인 ‘중요한 건 꺼이지 않는 마음(중꺼마)’이라는 문구는 올해 한국 사회 최고의 메시지로 남았다.

### 2 ‘23골’ 손흥민 아시아 선수 최초 EPL 득점왕

유럽 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써 온 손흥민(30·토트넘)이 2022년에도 금자탑을 하나 추가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에 오른 것이다.

손흥민은 올해 5월까지 열린 2021-2022시즌 EPL에서 총 23골을 터뜨려 이집트 출신의 골잡이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다.

잉글랜드를 비롯해 유럽 프로축구 ‘5대 빅리그’로 불리는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를 통틀어봐도 아시아인이 득점왕에 오른 건 전례가 없는 일로,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의 새 역사를 창조했다. 리그의 23골과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의 1골을 더해 전체 공식전에서 총 24골을 넣은 그는 2020-2021시즌에 작성했던 개인 최다 득점 기록(리그 17골·공식전 전체 22골)을 모두 재차 경신했다.

손흥민은 EPL 한 시즌 23골로 ‘한국 선수 단일 시즌 유럽 리그 최다 득점자’ 타이틀도 홀로 지니게 됐다.

이전까지 2020-2021시즌의 손흥민과 1985-1986시즌 독일 레버쿠젠 소속의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남긴 17골이 이 부문 최다 타이 기록이었다.

### 3 ‘스마일 점퍼’ 우상혁 한국 육상 최초 세계실내선수권 우승

‘스마일 점퍼’ 우상혁(26)이 도약할 때마다 한국 육상의 역사가 바뀌었다.

우상혁은 2022년 3월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7월에는 실외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실내선수권 우승, 실외 세계선수권 2위 모두 한국 육상 사상 최초 기록이다.

2022년 우상혁의 타임 라인은 무척 화려했다.

우상혁 덕분에 한국 육상도 역사에 남을 1년을 보냈다.

우상혁은 2월6일 체코 후스토페체 실내 대회에서 2m36을 넘어 자신이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작성한 한국 기록(2m35)을 경신했다.

실외 무대에서도 우상혁은 최정상급 기량을 과시했다.

5월14일 도하 다이아몬드리그에서 우상혁은 2m33으로, 자국에서 경기를 치른 현역 최고 점퍼 무타스 에사 바시(카타르)를 꺾고 우승했다. 올해 꾸준히 성과를 낸 우상혁은 세계육상연맹이 집계한 월드 랭킹 포인트 1위에 올라 2022년을 남자 높이뛰기 세계 랭킹 1위로 마감했다.

### 4 SSG 랜더스, 완벽한 ‘통합우승’

프로야구 SSG 랜더스는 SK 와이번스를 인수한 뒤 두 시즌 만에 ‘완벽한’ 통합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야구사에 한 획을 그었다.

SSG는 프로야구 출범 40년 만에 최초로 정규리그 개막일부터 종료일까지 한 번도 1위를 뺏기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 1위로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한 뒤 키움 히어로즈를 4승 2패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SSG는 전신인 SK 시절을 포함하면 2018년 이래 4년 만에 우승 삼패인을 터뜨렸다. 아울러 2007년, 2008년, 2010년, 2018년에 이어 통산 5번째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SSG의 우승은 예견돼 있었다. SSG는 올 시즌을 앞두고 정용진 구단주의 진두지휘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전력 강화했다.

올해 3월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했던 프랜차이즈 스타 좌완 선발 김광현과 당시 역대 최고 총액인 4년 151억원에 계약해 화제를 모았다.

SSG의 발 빠른 결단도 통합 우승에 큰 역할을 했다. SSG는 키움과 한국시리즈에서 2승 2패 동률을 허용한 뒤 김원형 감독과 계약 방침을 세웠다고 깜짝 발표해 팀 분위기를 전향했다. 다만 SSG는 시즌 종료 후 단장 교체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 팬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 광주매일신문 등 전국 50개 연합뉴스 회원사 선정 2022 국내 스포츠 10대 뉴스

체육기자가 뽑은 2022년 최고의 국내 스포츠 뉴스는 2022년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전해 온 한국 축구대표팀의 16강 진출 낭보였다.

연합뉴스가 광주매일신문 등 전국 50개 전체 계약 회원사를 대상으로 12-19일 진행한 ‘스포츠 10대 뉴스’ 선정 조사에서 36개 회원사가 ‘한국축구, 2022 카타르 월드컵서 12년 만의 16강 진출’ 항목에 1위 표를 던졌다.

2010년 남아공하계 월드컵 이래 12년 만이자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합쳐 역대 세 번째로 달성한 축구대표팀의 16강 진출은 이번 조사에서 총점 472점을 얻어 올해 우리 국민을 가장 기쁘게 한 뉴스로 선정됐다.

연합뉴스는 먼저 올해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탄생한 주요 뉴스 29개를 스포츠 10대 뉴스 후보 항목으로 추려 50개 회원사에 의견을 물었다.

이어 1위 10점, 2위 9점, 3위 8점 등 순위별 차등 배정한 결과를 모두 합산해 10대 뉴스 순위를 매겼다.

/편집자 주



①한국축구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쾌거 ②아시아 선수 최초 골든 부트를 수상한 손흥민 ③2022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결선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우상혁 ④2022 KBO 시상식에서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키움 이정후 ⑤2011년 박태환 금메달 이후 11년 만에 세계수영선수권 롱코스(50m) 경쟁 종목에서 메달을 따낸 황선우 ⑥세리에A 최고 수비수로 우뚝 선 김민재 ⑦17년 만에 K리그 정상에 선 울산 ⑧‘완벽한’ 통합우승을 이뤄낸 SSG.

### 7 ‘롯데맨’ 이대호, 화려한 피날레

키 194cm, 체중 130kg의 거구에서 부드러운 스윙으로 수많은 야구를 그린 이대호는 한국 야구계 곳곳에 ‘거인의 발자국’을 남겼다.

국내에서 롯데 유니폼만 입은 그는 17시즌 동안 1천971경기에서 타율 0.309, 374홈런, 1천425타점을 올린 최정상 프랜차이즈 스타다. 2010년 타격 7관왕과 9경기 연속 홈런, 2015년 프리미어12 우승 등 팬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도 선사했다.

국내를 평정한 이대호는 일본프로야구(오릭스 버펄로스·소프트뱅크 호크스)와 미국프로야구(시애틀 매리너스)에 차례로 진출하며 한미일 무대를 모두 밟아본 최초의 한국인 타자가 됐다.

2015년 소프트뱅크 우승을 이끌고 한국인 선수 최초로 일본시리즈 최우수선수(MVP)에 올랐고, 2016년 시애틀에서는 지독한 플레튼 시스템에도 14홈런을 쏘아 올렸다.

2017년 고향 롯데로 돌아와 ‘2022시즌 후 은퇴’를 일찌감치 못 박은 그는 올해도 최정상급 기량을 선보였다.

특히 지명타자 부문 골든글러브를 손에 넣으면서 역대 최고령 수상자인 동시에 은퇴 시즌에 황금 장갑을 낀 유일한 선수로 남았다.

### 8 ‘울산’ 17년 만에 K리그 정상에 서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2005년 이후 17년 만에 K리그 정상에 우뚝 섰다.

울산은 10월 막을 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2에서 22승 10무 6패를 기록해 승점 76으로 우승했다. 이로써 울산은 1996년과 2005년에 이어 팀 통산 세 번째로 K리그를 제패했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전북에 밀려 준우승한 울산은 준우승 10회로 K리그에서 최다를 기록, 준우승 전문가라는 별칭도 있었으나 올해 이를 시원하게 털어냈다.

지도자로 처음 리그 우승을 맛본 홍명보 감독은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에 이은 ‘10년 주기 실’을 확인했다.

반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시즌 간 9번이나 우승하고, 지난해까지 K리그 사상 최초의 5연패를 달성한 전북은 승점 3차이로 울산에 우승을 내줬다.

다만 대한축구협회(FA) 컵에서 역대 최다 우승 타이 기록인 5번째 우승을 달성해 K리그 2위에 머문 아쉬움을 달랬다.

K리그2 광주FC와 대전하나시티즌은 1부 리그로 승격해 희망찬 2023시즌을 준비하게 됐다. 광주는 한 시즌 만에 승격했고, 반대로 김천은 한 시즌 만에 다시 2부 신세가 됐다.

### 9 ‘눈 뜨고 코 베이징’ 올림픽 오심 논란 속 쇼트트랙 선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시작된 ‘동북아 3연속 올림픽’이 2022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거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끝을 맺었다.

한국은 베이징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로 종합 14위를 기록, 금메달 1-2개를 따내 종합 순위 15위 내에 들겠다는 목표를 이뤘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강세를 보였던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가 나왔다.

대회 초반에는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황대헌(강원도청), 이준서(한국체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실격당하고, 대신 개최국인 중국 선수들이 결선 진출권을 얻어 판파 판정 논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한국 쇼트트랙은 메달 레이스를 이어갔다. 황대헌은 남자 1,500m에서, 최민정(성남시청)은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민정은 여자 1,000m에선 은메달을 차지했고, 그를 비롯한 여자 대표팀은 3,000m 계주에서 2위에 올랐다. 또 남자 대표팀은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 5 황선우, 박태환 이후 11년 만에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 금메달

물살을 가를 때마다 한국 수영의 역사를 새로 써 내려가는 황선우(19·강원도청)는 실업팀 선수로 처음 보낸 2022년에도 뚜렷한 발자취를 여럿 남겼다.

황선우는 올해 6월 2022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1개를 따고, 단체전을 포함해 한국 신기록을 다섯 차례나 갈아치웠다.

특히 황선우가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47의 한국 신기록을 작성하며 탄 은메달은 롱코스(50m) 세계선수권대회 경쟁 종목에서 한국 선수로는 2011년 중국 상하이 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 박태환(33) 이후 11년 만에 수확한 메달이었다.

황선우의 역병은 쇼트코스(25m)에서도 이어졌다. 12월에 열린 2022 FINA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39초72의 아시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고 대회 2연패에도 성공하며 올해를 뜻깊게 마무리했다.

황선우의 기록은 이 대회 남자 계영 800m 결승에서 자신이 작성한 중전 아시아 기록(1분40초99)을 이틀 만에 1초27이나 단축한 것이었다. 파울 비터만(독일)이 전신수영복 착용을 제한하기 전인 2009년 작성한 세계 기록(1분39초37)에 0.35초가 뒤진 기록이라 2023년을 더 기대하게 했다.

### 6 타격 5관왕+MVP ‘이종범 아들’ 꼬리표 떴던 이정후

“아버지와 같은 나이에 5관왕을 달성했다. 비로소 제게 놀라라났던 ‘이종범 아들’이라는 수식이 떴고 야구선수 이정후로 당당히 섰다.”

이정후(24·키움)가 2022 KBO리그 정규시즌 타격 5관왕을 차지한 뒤 밝힌 소감에서 그는 아버지 이종범(62) LG 주루코치를 언급했다.

한국 프로야구의 아이콘과 같았던 아버지 덕분에 입단 때부터 아버지의 별명 ‘바람의 아들’에서 따온 ‘바람의 손자’로 불렸던 이정후는 이제야 당당히 아버지 앞에서 야구선수로 나란히 섰다.

올해 이정후는 타율(0.349), 출루율(0.421), 장타율(0.575), 안타(193개), 타점(113점)까지 타격 5개 부문 타이틀을 휩쓸었다.

2010년 타격 7관왕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세운 이대호(40) 이후 첫 KBO 타격 5관왕이며, 1994년 안타-타율-출루율-득점-도루에서 5관왕에 올랐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리그 첫 부자(父子) 타격 5관왕을 달성했다.

그리고 KBO 시상식에서 유효표 107표 가운데 104표를 얻어 생애 첫 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 트로피까지 품었다.

이로써 이정후는 1994년 리그 MVP인 아버지에게 이어 28년 만에 ‘한미일 첫 부자 MVP’ 대기록을 완성했다.

### 10 김민재, 세리에A 최고 수비수로 우뚝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30·토트넘)과 더불어 ‘축구의 본산’ 유럽 무대에서 정상을 밟아낸 우리나라 선수가 또 한 명 등장했다.

주인공은 이탈리아 세리에A에 연착륙한 ‘괴물 수비수’ 김민재(26)다. 울려 퍼진 나폴리에 합류한 김민재는 개막 15경기 무패, 11연승 행진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김민재는 세리에A,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등 공식전에서 14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하며 수비의 핵으로 자리 잡았다.

덕분에 지난 시즌 3위 나폴리에 리그 1위(13승 2무·승점 41)를 질주하고 있다.

국내 수비수 중 처음으로 이탈리아로 향한 김민재는 첼시(잉글랜드)로 떠난 ‘터줏대감’ 칼리두 쿨리발리(31)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다는 평을 받는다.

김민재는 세리에A ‘9월의 선수’로 뽑히며 세계적 수비수로 공인받았다. 아시아 선수가 세리에A 이달의 선수에 선정된 건 최하다.

세리에A까지 진출한 김민재의 목표는 리그 제패다.

김민재는 월드컵을 마치고 인턴국제공명에서 이탈리아로 출국한 지난 14일 ‘이런 이야기지만 동료들이 잘해주고 있다. 목표는 우승’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